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관광경영학과	이름	유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미네소타 (Saint Paul)
파견대학	Concordia University	파견기간	2018-2학기,2019-1학기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Concordia University 는 미네소타의 Saint Paul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세인트폴은 미네소타주의 주도로 주 내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또한 미니애폴리스와 맞닿아있어 이 도시를 함께 트윈시티라고 부릅니다. 공항에서 15-20분 거리에 학교가 위치해 있고 메트로가 잘 되어있어서 메트로 지도를 잘 이용해서 다니면 쉽게 주변 관광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순천향대학교의 3/1정도 되는 작은 학교입니다. 다이닝홀, 오락룸,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다크룸(사진 인화하는장소), 풋볼 경기장 등 여러시설을 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콩코디아 대학교에는 다양한 국적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싱가폴, 탄자니아 등)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한국인은 순천향대학교에서 저희 2명뿐이었습니다. 주변에 한국인을 찾기가 정말 드물어서 가끔 외로울때가 있지만 주변에 좋은친구들이 많아서 같이 어울리다 보면 즐겁고 영어회화도 자연스럽게 늘게 됩니다. 또한 학교가 작아서 웬만하면 거의 모든 친구들을 지나가다 만날 수 있고, 전에 같이 들었던 수업에서 보았던 친구들을 다른수업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과 또 다른수업에서 만나면 더 친근하고 편하게 수업에서 어려운점이나 팀플에 관해서 궁금한점을 물어볼 수 있어서 좋고, 그 친구들도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5-10분거리에 타겟, 월마트, 커브 등 대형마트들이 정말 가까워서 좋습니다.
2018-2학기 수업	*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 TIP) 수강신청 전, 수업 강의 들을때 실러버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수업계획서인데 교수님들께서 수업일정을 적어놓으시고 언제 과제를 제출해야하는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성적기준을 어떻게 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쓰여있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있지 않는이상 교수님들께서 실러버스 일정을 98% 지키시기 때문에 실러버스 확인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Black board <과

	제제출, 공지사항 시스템> 확인도 잊지마세요!!) 저는 제가 수강했던 모든 수업들이 좋았아서 모두 추천합니다.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행동론의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는 수업으로 2학년 수업입니다. 강의 형식의 수업이고, 수업 중간 중간에 옆 뒤 자리 친구들과 간단한 토의,토론,게임을 합니다. Anastasia 교수님은 수업에 굉장히 열정적이십니다. 2주에 한번씩 금요일에 퀴즈를 푸는데 이날은 수업이 없고, 일요일까지 퀴즈를 풀어서 Black board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업 내용에서 Motivation 부분을 강조하시고 시험에도 나옵니다. Managing in a Global Economy- 이 수업은 수업전에 미리 그날 배울내용을 읽고가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계의 경제, 문화 등의 대해서 배우고 2-6명의 멤버들과 팀플을 합니다. 나라 하나를 정해서 그 나라의 전반적인 부분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저 포함 3명은 South Africa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나라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재밌습니다. 중간,기말시험또한 퀴즈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중복으로 나오기때문에 항상 퀴즈공부도 열심히 하시길 권장합니다. Interpersonal Communication- 사람들과의 의사소통,매너 ,교류등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도 주로 강의 형식이고 주변친구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수업입니다. Lori 교수님은 나이가 있으신 여자 교수님 이시고 유쾌하고 귀여우십니다. Professor 보다 Ma Ma Sho 라고 부르시는걸 좋아하고 학생들과 소통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학기말에 SNS 기능과 소통에 대해서 팀원들과 발표가 있습니다. 또한 영화를 보고 배운내용과 연관하여 느낀점을 쓰는 레포트와 자기소개 발표 등이 있습니다. 첫학기에 학교생활에 적응하면서 듣기 좋은 과목입니다. Approaching art- 여러나라, 시대의 미술작품과 예술에 대해서 배웁니다. Erin Maurelli 교수님은 예술에 대해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것을 권장하여 전시회추천, 다양한 미술 영상등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맡은작품 발표, 전시회 3번 다녀와서 감상문쓰기, 학기말 시험에는 작품보고 감상평 및 분석하기가 있습니다. 전시회를 3번 다녀와야 되는데 차가 없이는 조금 번거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친구들을 사귀어서 같이 다녀오는것을 추천합니다. 교수님도 유쾌하시고 수업도 재밌고 전시회도 흥미로운 주제들이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이 수업을 추천하고 같은수업의 다른 한분의 교수님은 강의위주의 정적인 수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자신의 수업성향에 맞춰서 들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Piano 1- 피아노 기초수업입니다. 우선 이 수업은 저희가 책을 국제학생센터에 다음 저희 학교 학생이 사용할 수있도록 두고 와서 책 구매하실 필요없이

	이 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실에 약 10대의 피아노가 구비되어 있고 소수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습니다. 한달에 2-3번 정도 배운거 테스트 하는 시험이 있고 워크시트를 풀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험도 범위를 정해주시는데 어렵지 않고 시험전에 다른 피아노 실에서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Foundatio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 국제학생들을 위한 수업으로 필수로 들어야하는 1학점 수업입니다. 문화와 예절에대한 다양한 수업을 하고, 미국에서 듣는 수업방식, 레포트 형식, 저작권. 인용에 대해서 주의할점등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입니다. 미네소타 관광지, 볼거리를 찾아서 팀원들과 다녀오고 그에대해서 발표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익스체인지처럼 공강시간에 멘토친구와 만나서 과제를하거나 학교행사를가거나 모르는것을 물어보는 멘토-멘티 시간이 있습니다.
2019-1학기 수업	2019-1학기 수업들도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의 모든 교수님이 친절하시고 좋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학기에는 멘토-멘티활동이 없습니다. Public speaking- 발표과제가 2주에 한번씩 있고 비중이 큽니다. 과제가 많은 편이고 중간,기말 시험은 쉽습니다. 교수님이 꼼꼼하셔서 매 수업마다 일정 체크를 해주십니다. 발표에 피드백을 잘 해주시고, 흥미를 가지고 들어주십니다. 발표는 교수님이 주제를 주시면 보통 4-6분 정도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한국어로 발표해도 굉장히 떨리는데 영어로 준비하려고 하니깐 부담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발표전에 많이 연습을 했고 하고 나면 뿌듯하기도 하고 영어실력향상에 도움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는동안 친구들은 발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습니다. 수업전에 항상 교수님께서 재밌는영상 준비해서 보여주십니다. Principle of Marketing - 매주 간단한 퀴즈가 있고 팀프로젝트도 2번 있습니다. 2번째 미션은 혼자해도 무방합니다. 교수님께서 다양한 예를 들어주시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십니다. 삼성, 엘지, 현대 이야기들도 예시에 자주 언급됩니다. 매 수업마다 교수님께서 간단한 질문을 물어보면 네임카드 뒤에 내 답을 적고 주위 친구들

	과 공유하거나 발표합니다. 전공수업이지만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교수님 성함은 낸시 입니다. Photography- 제가 들었던 수업중에 제일 꿀 수업입니다. 다양한 카메라로 풍경을 찍고 사진인화실에서 불을 다 끄고 사진을 뽑습니다. 카메라는 교수님이 제공해주시고 날짜별로 조를 나누어서 인화를하는데 제 날짜가 아닌날은 수업이 없는날입니다. 못해봤던 경험을 해봐서 저는 이수업을 추천드립니다. 인화실을 다크룸이라고 하는데 다크룸 사용비용 50달러를 따로 지불합니다. 가끔 강의 수업있고 거의 실습입니다. 시험은 없고 1학기동안 제가 인화한 사진 제출하는것이 과제입니다. Basic Musicianship - 음악의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입니다. 어렸을때 피아노학원을 다녀서 어느정도 이론을 이해하는데 괜찮았지만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중간, 기말 시험있고 워크북 풀어오는것이 과제입니다. Piano2 - Piano1 에 이어지는 수업입니다. 1과 시험, 과제 방식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 입학하면 여러나라의 국제학생들(중국, 사우디아라비아,멕시코 등등)과 같이 전반적인 학교내용을 설명듣습니다. 비자, 근로, 수업 등등.... 그리고 국제학생 담당 교수님들 소개와 전공 교수님들과의 짧은 담화가 있습니다. 설명이 다 끝나고 학생회 학생들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소개시켜줍니다. 국제학생 담당부서에 티파니, 콜린, 베트남에서 오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콜린 교수님은 한국인 남편이 계셔서 저희랑 말도 잘 통하고 한국 학생들도 잘 챙겨주시고 친절하셔서 너무 좋았는데 아쉽게 2019-2학기에 다른 학교로 가셨습니다. ㅠ.ㅠ 국제학생 담당 교수님들 전부 친절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Culture Fair 행사가 있는데 각국 여러나라들이 각자 부스에서 문화소개나 음식이나, 간식을 다른학생들에게 소개개합니다. 교수님, 학생들, 학교부속 어린이집의 어린이들 등 많이 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학교에 막 도착하면 날씨가 선선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10월12일에 미네소타에 첫눈이 왔어요 ^^ . 점점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 눈 많이 내리고 계속 쌓입니다. 이번에 체감 영하 45도까지 내려가서 학교 1주일정도 휴교했습니다. 진짜 정말 추워요 이때는 밖에나갈 엄두도 안납니다. 물론 기숙사는 매우 따뜻합니다. 꼭 한국에서 롱패딩 챙겨가세요. 미국에는 한국에서 파는 롱패딩 디자인을 거의 찾기 힘듭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미네소타는 대체로 안전한거 같아요. 근데 저희가 미네소타 도착하고 1-2주 정도 됐을때 지하철에서 마약한 흑인이 저희한테 와서 말걸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밤에도 기숙사 근처에서 이상한 사람 본적도 있습니다. 너무 늦게만 다니지 않으면 정말 좋습니다. 밤8,9시전에는 기숙사로 꼭 돌아오시고 너무 늦은시간에 기숙사 밖으로 안나가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Security 분들이 순찰돌고 계속 학교에 계십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두학기 다 Holst Hall에 살았습니다. 4명이서 한 호실을 같이쓰고, 각 개인방인 따로 있습니다. 화장실은 2명이서 하나 쓰고, 거실과 부엌은 공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던게 1층 남자, 2층 여자 이렇게 나뉘어 있는게 아니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여자끼리 방을 쓰지만 한층에 남자 여자 호실 같이 씁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랑 더 어울리기 쉬운거 같고 그 친구들 방에가서 같이 놀기도 합니다. 기숙사는 정말 좋습니다. 항상 학생증을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기숙사 들어올때, 식사내 다른문 통과할때, 엘베탈때 등 카드가 필요합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직접 요리 ( ) 기타 (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밀플랜을 따로 구입하지 않았고, 주로 부엌에서 요리해먹고, 가끔 학교식당에서 밥을 사먹었습니다. 홀스트홀에 살때 밀플랜을 신정하지 않아도, 250불을 지불해야 합니다. 스패니치랩이라고 있는데 저희의 최애 학식메뉴였습니다. 강력추천합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 미국에서 교환학생 생활하면서 느낀점이 정말 미국에는 차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 있는 친구들을 사귀면 그래도 가끔 부탁해서 근처 아울렛이나 쇼핑몰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메트로나 버스를 이용하면 근처 U OF M 대학교나 관광지, 그리고 쇼핑몰등 갈 수 있습니다. 메트로 타고 공항이나, 몰오브아메리카 가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 현지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220만원	
Fees	Student survive fee -$1,200	모든 비용은 한학기당 기준
보험료	국내에서 30만원 유학생 보험 들었습니다.	*1년*
숙소	Holst hall- $3,520	
식비	$280	
교통비	$50	
책값	$350	
기타1		
기타2		
합계	2000-2300만원	+여행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교환학생와서 제일 크게 느낀게 오기전에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오면 좋았겠다 였습니다. 리스닝과 스피킹실력을 늘려서 오면 수업들을때도 더 많이 얻어갈 수 있고, 친구들이랑도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더 즐거운 교환학생 생활을 보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플준비 끝났다고 영어 쉬지마시고 스피킹, 리스닝 공부 꾸준히 하고 오세요~ *^^*. 그리고 미네소타는 의류에 택스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옷은 여기서 사시는거 추천드리고
옷 많이 안가져오셔도 될꺼같아요. 그리고 한국과 다르게 미국에서는 거의 츄리링이나 진짜 편안옷 입고 다녀서 예쁜옷은 2-3벌만 챙기면 될꺼같습니다. 저는 갠적으로 통조림이나, 팩에 들어있는거 등 먹을거로 캐리어 채워 오시면 좋을꺼 같아요. 저는 올 때 소량의 쌀을 가져왔는데, 다이소에 전자레인지에 7분정도 돌리면 밥이 되는 용기 있어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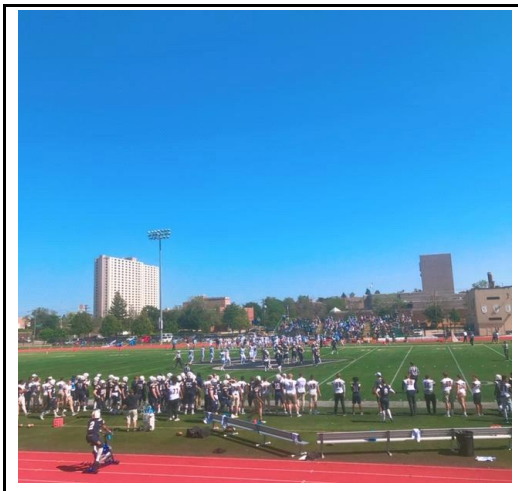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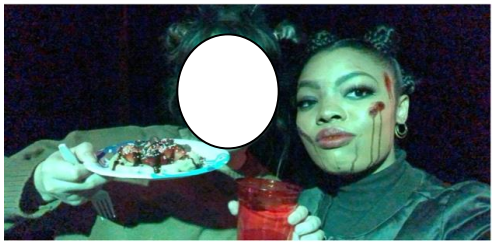
타지, 그것도 미국에서 정말 현지인들과 현지인들처럼 언제 살아보겠어요. 교환학생 하면서 정말 저는 많이 배우고 느끼고 왔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미국인들의 마인드나, 교육방식, 학교생활, 문화 등을 보고 느끼면서 새로운 관점이나 시각을 넓히고 왔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실력이 완전 향상했어! 이런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영어로 듣고, 말하고 ,쓰고 하면서 영어실력향상은 됩니다. 영어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졌고, 누가 영어로 물어봐도 전처럼 겁이 나지 않고, 한국에서는 거의 혼자 공부로만 영어를 배웠다면 여기서는 몸으로 느끼고 친구들과 놀면서 배울 수 있어서 훨씬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모르는것도 물어보고 서로 문화교류도 하고 알려주면서 좋았습니다. 두번째 학기 끝에쯤에 눈도 많이 와서 밖에 못나가고 기숙사에만 있어야 되서 약간의 향수병이 왔는데 한국에 오니깐 또 다시 미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특히 미국하늘 너~~무 이쁩니다 크고 넓고 뻥!! 뚫렸어요.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서 너무 감사하고 미국으로 교환학생 다녀온게 지금은 정말 꿈만 같습니

다. 가서 많이 느끼고 보고 배우고 오세요 ~ 그리고 방학마다 여러지역 여행도 많이 다니시는것 추천드립니다. 특히 저는 플로리다 -올랜도 <디즈니월드> 정말 최고였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미식축구 경기



할로윈 파티

리더쉽 캠프

Hmong new year

Hmong친구들과 기숙사에서 파티

올랜도 디즈니월드